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62. 용의 핍박과 성도를 도운 땅

2014. 03. 09.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용과 성도들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건의 연장선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2:13~16]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낮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12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진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진리를 보존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답: 기독교의 역사적 발전을 보면 진리가 왜곡될 길을 걸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말리시고 마케도니아로 보내셨잖아요?(예, 그랬지요.) 행16:6~9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 전도를 시작되었습니다. 헬라로 복음이 들어갔고, 다음 로마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하여 헬라와 로마의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헬라인들 중에는 헬라 철학에 조예가 깊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성경사상과 헬라 철학을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요. 어쩌면 그 첫 번째 사람이 저스틴 말터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여 헬라 철학 사상이 성경의 사상을 물들이게 되었지요. 특히 영혼 불멸 사상은 헬라철학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가장 큰 오류입니다. 신플라톤 사상의 영향이었지요. 그것이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들어가서 교회가 로마에서 세력을 떨치면서 오류가 진리인 것처럼 교회를 휘저은 것입니다. 1260년이라는 긴 세월은 참된 진리의 백성들이 생활과 몸으로 핍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가 사상적으로 핍박에 빠진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용이 입으로 물을 토한다는 말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2.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는 말은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핍박한다는 말이겠지요?

답: 그렇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순수한 진리교회를 표상한다는 것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용이 이 진리교회를 핍박하는데, 물리적인 핍박과 아울러 사상적인 핍박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계12: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것은 사단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자, 세상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변경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패배하여 쫓겨난 분풀이를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는 것이지요.

3.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는 진리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세상의 정치적 세력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변질된 교회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지요. 셋째 나팔에 햇불 같이 타는 별이 땅에 떨어져서 강과 샘물을 썩이 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루시퍼가 광명한 새벽별처럼 세상에 임하자 교회가 광명한 천사인줄 알고 영접하였고, 그것이 진리를 썩이 되도록 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 때에 암흑시대가 되었지요. 그 시대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을 지배한 세력이 바로 변질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주관하는 자가 햇불처럼 불타는 별로 임한 루시퍼입니다. 사실 가장 긴 핍박 기간인 1260년 기간은 변질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진리를 핍박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헬라와 로마 지식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배운 사상으로 성경을 풀이하고 철학적으로 조직하면서 진리가 변질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진리 교회와 성경적 진리를 간수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를 광야에 있게 하셨는데,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피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보호하셨고, 다음은 1776년 미국 독립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장소를 마련해주심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은 6절과 14절이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과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홍수처럼 쏟아내는 것을 15절이 표상적 장면으로 예언했습니다.

[계12:14,15]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4절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15절을 설명해야하겠지요. 뱀, 곧 사단이 교회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앞에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입으로 공격합니다.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떠내려갈 수 있는 물은 홍수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4. 홍수라고 하면 노아 때의 홍수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답: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상태로는 그들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핍박하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해하는 것은 아주 잘 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공격하는 것은 숨어서 하는 공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뒤통수를 친다는 표현을 하는데, 바로 뱀의 수법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입으로 토한다고 한 것은 물리적 핍박보다는 사상과 오류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을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입으로 물을 토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속이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으로 토하는 말로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헬라와 로마 철학으로 성경을 풀이할 때 기초를 놓았는데, 12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그런 사상을 아주 견고하게 교리와 신조에 박았지요. 다음으로는 이런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진리를 핍박합니다. 물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라고 17:15에 기록했지요. 이 세상에 변질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지요. 이런 사상의 기반이 바로 영혼불멸설이고 일요일 주일설입니다. 이 두 사상은 부활과 창조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상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사상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토한 물에 빠진 것이지요. 진리를 오류로 만들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으로 해를 입은 여자, 곧 진리와 진리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5. 참 교묘하게 일했습니다. 핍박도 그런 형태로 다가오면 십중팔구는 속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고 진리를 지켰으니 참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한 말씀을 하셨지요?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답: 좋습니다. 시편 12:6,7이었지요.

[시12:6,7]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7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순결한 말씀을 영영토록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긴 핍박의 기간, 진리를 땅에 던지고 왜곡하는 기간에도 진리를 지키시고 오늘까지 보존하셨습니다. 또 잠 19:27에도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19:27] 내 아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는 성경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은 교훈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듣게 되면,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했는지, 에덴동산에서도 통하는 방법이였지요. 입으로 토한 속임수에 넘어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눅8: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희들이나 애청자들이 듣는 것을 삼가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딤후2: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6. 그렇게 물을 토하여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떠나려가게 하려고 할 때에 그 물을 삼킨 땅이 있네요. 무엇을 상징하는 장면입니까?

답: 예, 16절 말씀이지요. 읽어봅시다.

[계12: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물을 삼킨 땅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은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주석에는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일반적인 설명이라서 그런 설명을 함께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틴 땅이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큰 홍수가 일어난다 해도 얼마가지 않아 땅 위의 물을 모두 흡수하게 되는 지리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출 15:12에 진술된 바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시사한다. 애굽의 군대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수많은 꾀계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설명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입으로 토하는 물이 핏박을 상징하니까 땅이 물을 삼키는 것은 핏박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로 유럽에서 그런 핏박이 있었지요. 그 핏박을 피하여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곳이 땅이 됩니다. 유럽 쪽에서 일어난 예언적 사건들은 다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들로 표현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이 그렇고 계13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일어난 핏박을 피하도록 준비된 곳이 바로 땅인데, 그것은 미국입니다. 물은 많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했는데(계 17:15) 땅은 인적이 드문 곳, 여러 나라들이 각축을 벌이지 않은 지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주는 곳을 뜻합니다. 바로 미국이지요. 유럽에서 순수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새 대륙 미주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피난 온 개신교인들이 있었지요. 세상은 그들을 퓨리탄(Puritan)이라고 부르지요. 우리말로 청교도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미주에 와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선언했고 엄격하게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교회와 신앙을 정립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순결한 교회를 도와서 핏박의 물결에서 지켜준 땅, 그것은 곧 미국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1260년이라는 긴 기간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 사건이 종교개혁과 미국의 독립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날들을 감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의 기독교와 신앙도 뱀의 입으로 토한 물에 깊이 잠겼습니다만 이 사건 당시에는 충분히 도움을 줬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퇴색이 되기는 했지만요.

7. 예, 그렇게 설명이 되는군요. 참 하나님의 돌보심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결과에 대한 것을 계시한 것이 17절입니다.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뱀이 입으로 토하는 물을 땅이 삼키게 하자, 자기의 핍박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땅의 도움으로 핍박의 물이 더 이상 없어지기를 바랐지만, 용으로 표상된 루시퍼가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그 존재를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그는 진리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참 묘합니다. 입으로 물을 토할 때는 뱀이라고 하였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은 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뱀은 속임수를 사용할 때 표상한 것 같고, 용은 폭력을 사용할 때 표상하는 것 같습니다. 에덴동산에서도 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속임수를 썼지요. 그런데 속임수가 통하지 않게 되자 이제 폭력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핍박의 대상은 그 여자 자체가 아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 여자는 당연히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이제 그 순결한 여자, 곧 성경적 진리교회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성경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지만, 원문은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 여자의 씨, 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창세기3:15에 한 번 있고 신약에는 바로 여기 한 번 있습니다.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말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이 여자의 씨인데, 그 예수님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자손들이 용에게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자손이라고 불려야할 정도로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이 활개를 치는 세상에 진정으로 구원의 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무리들이 될 것이고, 용은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이미 12절에 말한 대로 용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 내어 내려왔는데, 땅이 도와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그들과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8. 그런데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 누구이지요?

답: 이 말씀에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놓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신교 학자들은 네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1) 남은 자손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2)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남은 자손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3) 여자는 ‘팔레스타인의 교회’이고 남은 자손은 로마 제국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4) 여자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반면 남은 자손은 신앙 공동체 중에서 사단의 핍박으로 인해 ‘순교당하는 개인으로서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설명들입니다. 이런 설명은 역사주의적 해석으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정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남은 자손의 정체를 깨닫는데 중요한 키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약의 성도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신약의 성도를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여자는 1260년 간 핍박의 기간을 지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구약시대에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1260년이라는 기간을 통과한 후의 진리교회와 관련된 표현이지요. 우리는 10장에서 예수님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책을 연구한 결과로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은 다시 예언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성소를 척량하

여 그것을 깨닫고 성소에 대한 성경말씀을 깨닫고 나니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첫째는 다시 예언하는 사건과 관련되어서 성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서 성소 언약궤 안에 보관된 하나님의 계명,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기록된 그대로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입니다. 11장 19절에서 하늘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사용할 도구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상기하기 위하여 구절을 한 번 읽는 것도 괜찮겠지요?(예, 좋겠습니다.)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12:17에 처음 나오는데, 11:19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언약궤 안에 있는 바로 그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즉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여 주신 그대로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제4계명이 그대로 있지요. 결코 제7일이 첫째 날로 바뀐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첫째 조건에 맞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1260년이라는 긴 환난의 기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함을 받고 뱀이 입으로 토한 물을 마시지도 않고 떠나려가지도 않은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10장에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된 대로 지킨다는 것을 깨닫는 일에 성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다시 예언하는 그 예언을 따라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과 관련이 되었고, 예수의 증거도 1260년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 예수의 증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언된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증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장 11절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것은 12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청자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은 기억하십니까?(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다시 예언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남은 자손의 조건으로 제시된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이해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9. 그러면 목사님, 오늘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은 없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자세히 말씀하셔야 하겠네요?(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답: 참 좋은 제안을 하셨네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 그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 아닙니까? 즉 예수님을 옷 입고, 생명이 있는 교회이지요, 그리고 발밑에 달이 있는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자손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 씨가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계시되었지요. 씨는 생명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한 생명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활동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않았지만 교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도 상관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하여 세상의 빛이 되면 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행위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이 둘은 다 위험합니다. 처음 사람들은 성경의 지시에 대하여 반드시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음식문제나 이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성경의 지시를 철저히 자기가 수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의 생명이 된다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2:20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0.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애청자들이 정말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용의 핍박이 극심했어도 진리를 보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삶을 살기에 넉넉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